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09
MAR 18 2022

발간년월 2022년 3월 18일(통권 제209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해운 분야 러시아 제재로 유럽 항만 혼잡 야기
- 러, 새로운 물류공급망 만들어 제재 조치 돌파*
* 3월 18일 발간 내용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재발간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월 21일 기준 내용 확인 결과, Transcontainer 사는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을 통과하는 루트를 폐쇄하지 않았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 북·중·러, 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에 대항하다.'
- EAEU 회원국, 'Eurasian Agro Express' 승인

전문가 칼럼

-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전망

주요 통계

- 2022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 * 러시아 극동지역 세관 홈페이지 접속 불가로 업데이트하지 못하였습니다.
세관의 홈페이지가 복구되는대로 게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 동향



해운 분야 러시아 제재로 유럽 항만 혼잡 야기

그림. 유럽 지역 항만 전경



자료: <http://www.morvesti.ru/news/1679/94428/>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 제재로 선박·화물, 유럽 대부분 항만에 묶여

- 중국 선사 코스코(COSCO)를 제외한 대규모 국제 선사들은 러시아 항만으로의 선박 기항을 취소하고 있음
- 해상 운송 시장 전문가들은 대러 제재로 인해 컨테이너 화물 운송 서비스 방향 등이 변화함에 따라 유럽 지역 대부분의 항만들이 극심한 체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함
- 한 해운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키프로스, 불가리아, 라트비아, 핀란드 등지 항만의 적체가 40%에서 최대 80%까지 상승한 상황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역 항만으로의 기항 취소, 화물의 해상 운송 경로 변경을 야기

- 프랑스의 해운 분석기관 알파라이너(Alphaliner)의 최근호에 따르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항만으로의 기항 취소는 화물 이동 경로 변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 혼선 가중, 항만 및 터미널의 컨테이너 화물 적체 현상 등으로 이어짐

- 또한 알파라이너는, 혼선 상황이 심화된다면 선박 회전율의 지속적인 감소는 물론, 이로 인해 용선 비용 또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음

■ JWC가 흑해·아조프 해를 전쟁 위험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선박 보험료도 상승

- 2월 중순 경 로이드 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런던전쟁보험자협회(JWC)는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흑해 및 아조프해를 전쟁 위험 구역으로 지정함
- 3월 둘째 주에는 선박 항행 위험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흑해 및 아조프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됨
- 실제로 방글라데시 해운 공사(Bangladesh Shipping Corporation)는 3월 첫째 주 우크라이나 니콜라에프 항만의 폭격으로 인해 건화물에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2,280만 달러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청구하였음

■ 러 교통부, 철도 운송 부문의 제재조치로 화물량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현재 해상 물류 운송부문에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철도를 통한 운송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사실상 철도 운송 및 철도 관련 산업에도 대러 제재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최악의 경우 러시아 철도 화물 운송량이 기존 수치 대비 82~8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 a) [http://www.morvesti.ru/news/1679/94428/\(2022.3.10. 검색\)](http://www.morvesti.ru/news/1679/94428/(2022.3.10. 검색))
- b) [https://rus.lsm.lv/statja/novosti/ekonomika/pri-hudshem-scenarii-zhd-gruzoperevozki-iz-ros-sii-sokratjatsja-na-85-ministr-soobschenija.a447068/\(2022.3.10. 검색\)](https://rus.lsm.lv/statja/novosti/ekonomika/pri-hudshem-scenarii-zhd-gruzoperevozki-iz-ros-sii-sokratjatsja-na-85-ministr-soobschenija.a447068/(2022.3.10. 검색))

러, 새로운 물류공급망 만들어 제재조치 돌파

그림. 러시아 경제안정개선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러시아 총리



자료: <https://ura.news/articles/1036284156>

■ 러시아 총리, 러시아 경제안정개선위원회 회의에서 교통·물류망 개선을 요구

- 러시아 전문가들이 전쟁에 따른 물류 공급망이 차단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아시아와의 공급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 러시아 총리는 최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검사 절차 폐지, 신규 자본 유치, 신용 및 금융시장 보호 조치 등 긴급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음
- 또 총리는 새로운 공급처와 구매처를 찾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중단 방지, 재교육 프로그램, 고용유지라고 강조했다

■ 러시아의 FM Logistic 사의 신사업개발 이사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 의류시장의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

- 글로벌 의류기업들은 4월 중순에서 향후 3개월간 러시아에 공급 중단 의사를 발표했으며, 이는 물류 업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덧붙였다
- 대중적인 의류의 경우, 2~3개월간 러시아산 의류 제품이 러시아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

- 소형 화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나 터키와 같은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극동지역 항만을 통해 해상 운송이 가능하며, 중국에서 급속열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인해 중국을 통한 루트는 폐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FM Logistic 사(社) 이사는 지적했음
-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내 창고의 가용 공간은 1% 미만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완제품 운송 중단과 제조업체의 원자재 재고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세계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선사들은 러시아 운항 서비스를 속속 중단하고 있음

- 함부르크 항만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HHLA(Hamburg Hafen und Logistik AG)는 러시아 항만의 화물 처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음
- 영국 정부는 러시아 선박의 영국 항만으로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프랑스의 CMA CGM은 러시아를 오가는 모든 신규 예약을 받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로 가는 화물은 루마니아, 그리스 및 레바논 항만으로 방향을 변경할 것으로 발표했음
- 덴마크의 머스크나 스위스의 MSC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물품만 운송할 것이며, 일본의 Ocean Network Express는 러시아 항로 운항을 중단했음
- 이 같은 조치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의 컨테이너 회전율 감소와 항만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향(向) 컨테이너는 발트해 연안 국가 및 핀란드를 통해 육로로 배송하는 방안 밖에 남아 있지 않음
- 대만 해운사 양밍(Yang Ming)은 2월 25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노보로시스크항을 오가는 운항서비스 예약을 중단했음
- 이에 비해 러시아 국영선사인 페스코(FESCO)와 중국의 장금상선(Sinokor), 러시아 철도청의 트란스컨테이너(Transcontainer) 사는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발표했음
- 한편, 앞으로 극동지역에서 중국을 통해 철도 운송하는 노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인프라로는 증가하는 화물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국제해운회의소(ICS)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상선 운항 선원의 14.5%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 국적이 19만 8,000명(10.5%)이며, 우크라이나 국적이 7만 6,400명(4%)으로 나타났음

- 한편,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3월 1일 러시아 등록·소유·통제·용선·운영되는 선박의 EU 회원국 항만에 입항을 금지하는 러시아 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아르쎈 러시아전문위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

(egorov201548131@mail.ru)

- 3월 18일 발간 내용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재발간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월 21일 기준 내용 확인 결과, Transcontainer 사는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을 통과하는 루트를 폐쇄하지 않았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참고자료

- a) <https://ura.news/articles/1036284156> (2022.3.16. 검색)
- b) <https://regnum.ru/news/economy/3533911.html> (2022.3.16. 검색)
- c) https://www.dp.ru/a/2022/03/04/Uslozhnenie_logistiki (2022.3.16. 검색)
- d) <https://www.newsvl.ru/society/2022/03/01/207084/>(2022.3.4. 검색)
- e) <https://www.newsvl.ru/vlad/2022/02/04/206346/>(2022.3.4. 검색)
- f) https://www.kommersant.ru/doc/5238836?from=glavnoe_5(2022.3.4. 검색)
- g) https://www.yangming.com/news/Press_Release/PressContent.aspx?UID=14184(2022.3.4. 검색)
- h) <https://www.fesco.ru/ru/press-center/news/informatsionnoe-soobshchenie-ot-28-02-2022/> (2022.3.4. 검색)
- i) <https://www.vedomosti.ru/business/articles/2022/03/01/911574-evropeiskie-porti-prekrasch-ayut>(2022.3.4. 검색)

북·중·러, 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에 대항하다.’

그림. 블라디보스토크의 냉장 화물선(2015년 8월 15일)



자료: <https://www.nknews.org/2022/03/north-koreas-trade-with-russia-crashes-spectacularly-in-2021-data/>

■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북한과 중·러 간 무역 재개 움직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력 증강, 북한의 계속되는 ICBM 미사일 시험 진행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에게 위태로운 방향으로 정세 급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논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계획에 비난
- 최근 북한은 8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북·중·러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는 태세를 취하는 상황임
- 러시아는 2022년 1월 2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을 차단하였고 중국도 인도주의적 이유로 유엔에 대북제재를 해제하도록 압력을 넣는 형국
- 북한과 중국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신의주-단둥 간 열차 운행 재개에 이어 2월 7일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무역은 부분적 재개 준비

■ 2021년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량은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전무한 상태

- 러시아 세관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코로나19 차단조치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 교역이

아예 증발

- 2021년 북한은 러시아의 화장품 제품을 중심으로 4만 달러 수입하였으나 러시아에 수출한 내역은 없는 상태인데, 2020년 북·러 교역액은 4,300만 달러 수준이었음
- 북한의 전체교역에서 95%를 차지하는 북·중 교역량은 2020년 5억 4,000만 달러에서 2021년 3억 2,000만 달러로 역시 급감
-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0년 10월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공식 정제 석유 수출을 중단, 이 시기 전체 교역이 사상 최저치에 도달
- 그러나 러시아 세관 데이터는 제재상품 혹은 밀수 거래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특히 러시아는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므로 북한과의 무역에 관한 규칙은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으며, 특히 모스크바의 철강, 희토류 광물과 같은 정제유 및 기타 제재 품목의 북한 선박 선적 가능성이 농후
- 위성사진 상 올해 초 북·중, 북·러 접경지역에서 육로를 통한 철도 무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포착되었으나 재가동은 추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
-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봉쇄조치로 러시아 중국과의 교역액이 모두 급감하였으나 2022년은 현재 북·중 무역이 재개된 가운데 북·러 간 무역도 조만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0)

참고자료

- a) <https://www.38north.org/2022/03/north-korea-is-joining-china-and-russia-in-confronting-the-us/> (2022. 3. 16. 검색)
- b) <https://www.nknews.org/2022/03/north-koreas-trade-with-russia-crashes-spectacularly-in-2021-data/> (2022. 3. 16. 검색)

EAEU 회원국, ‘Eurasian Agro Express’ 승인

그림. 농산물 재배 현장



자료: <https://kapital.kz/economic/103243/prem-yer-ministry-stran-yeaes-odobrili-yevraziyskiy-agroekspres.html>

■ 유라시아 정부 간 협의회(EIC)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의 제안으로 고속철도 및 복합운송 ‘Eurasian Agro Express’ 공동 사업을 승인^{a)}

- EAEU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산물 및 식품의 상호공급 및 수출량 확대하고, 이를 다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 안드레이 슬레프네프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상부 장관이 이 사업의 첫 번째 단계에서 정기 운송은 EAEU 외 국가인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쌍방향으로 운송할 계획이나, 향후 아시아 및 유럽지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기 운송은 해상운임에 있어 경쟁력 있는 효율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상품 운송 시간 (중국향 10~14일, 우즈베키스탄향 4~7일이 소요)이 단축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슬레프네프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서 유지류, 유제품, 육류, 야채·과일, 완제품 또는 수익성 있는 상품에 중점을 둔 식품 등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사업은 냉동식품용 냉장컨테이너를 포함하여 벨라루스,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

중국 등 방향으로 매주 2개의 컨테이너 전용열차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월간 화물량은 1만 톤까지 처리가 가능해짐

- 이 사업에는 벨라루스 물류회사 브레미노 합작투자회사 (Bremino Group LLC), 카자흐스탄 국영철도회사 익스프레스 (KTZ Express), 키르기스스탄 국영철도회사 (KTZ), 러시아철도청 자회사인 러시아 철도 로직스틱스 (RZD Logistics), 러시아 슬라브트랜스 서비스 물류회사(Slavtrans Service) 등이 참여하고 있음
- 한편, 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자율적 비영리단체인 'Eurasian Agrologistics'가 설립되어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고 있음

아르조름 러시아전문위원, 동북 아시아지역 자치단체 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
(egorov201548131@mail.ru)

참고자료

- a) <https://kapital.kz/economic/103243/prem-yer-ministry-stran-yeaes-odobrili-yevraziyskiy-agroekspress.html>(2022.3.4. 검색)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전망

김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외래교수

작년 봄부터 긴장이 조성되어 수개월째 지속된 우크라이나 위기 끝에 결국 전쟁이 발발했다. 러시아는 2월 24일 ‘특별군사작전’이란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를 비난하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제3차 세계대전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 작전 경과 및 전망, 한반도에 대한 함의 등을 주로 군사적 차원에서 조망해본다.

I.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

돈바스 주민 보호

2021년 11월부터 소위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개월째 진행되었다. 러시아군 병력이 훈련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약 19만 명의 병력을 집결하여 위기가 고조되다가 결국 2022년 2월 24일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군사작전’이란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러시아군의 작전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은 돈바스 문제이다.

돈바스 지역의 루한스크 및 도네츠크 공화국은 2014년 크림공화국의 성공적인 러시아 편입을 목격하고 크림공화국과 같은 길을 걷고자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강경 진압에 따라 무력투쟁 상황이 지속되자,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2개 공화국의 휴전을 위해 유럽연합이 개입하여 2014년 가을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민스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돈바스 지역은 법적으로 정전(停戰) 상태였으며, 이를 감독하기 위해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감시단 약 700명이 파견되어 감시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정전 규정 위반 사례가 매주 약 200건씩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결국 러시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 지역 주민을 공격하는 등 민스크협정에 대한 준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돈바스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독립국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NATO 동진 확대에 대한 뿌리 깊은 위협인식

2014년 크림합병의 원인도 NATO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러시아는 당시 친러 야누코비치 정권을 축출한 유로마이단 혁명을 미국의 공작으로 보고 있다. 결국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위기감을 느낀 크림공화국은 러시아 편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였으며, 결국 러시아의 지원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96%의 찬성으로 독립 선언 및 러시아로 편입에 성공했다. 러시아의 지정학자인 두긴은 크림합병을 서방에 대항하여 ‘사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필사적 전투로 보았다.

러시아는 탈냉전 시대의 NATO 확대에 대해 미·소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1989년 독일 통일을 위한 협상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독일 통일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NATO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공식문서 없이 구두로 협상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푸틴 러시아는 NATO에 대하여 동진 확대 중지를 문서로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요구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4일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제24차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가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나서 ‘신시대 국제관계 및 세계발전에 관한 러중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소수 국가는 국제문제 해결에서 일방적인 접근, 무력 선호, 내정간섭 등으로 인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했다. 여기서 소수 국가는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러중 양국이 미국에 대해, 시대 변화에 역행하여 단극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구시대의 소수 국가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세계질서가 변화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제부터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상적인 강대국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국의 안보를 넘어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러시아에 유리하게 재형성하려는 의지의 발로로 볼 수 있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 미국과 NATO에 각각 안보 제안서를 보냈다. 주요 내용은 ① NATO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구소련 국가들에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 ② 러시아-NATO 협정을 체결했던 1997년 수준으로 NATO의 군사력 배치를 되돌릴 것, ③ 러시아 고유 세력권인 CIS 국가에 무기 지원 금지 및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말 것 등이었다.

미국 및 NATO는 한 달 후 이에 서면답변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제안대로 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화를 통해 차후에 해결하자는 논조로 작성이 되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측의 답변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러시아 제안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난했다. 또한,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안보 불가분의 원칙으로서 이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손상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미국의 답변에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답변에서 자국의 안보 제안이 무시당하고 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돈바스 지역 문제의 해결 의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한스크 공화국의 승인,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최종적으로 결심하였다.

II. 침공 경과와 전망

외국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력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러시아가 단기간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에 걸친 러시아의 공세는 결사 항전으로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대량 피해를 보며 기동성이 둔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러시아군 공격 상황



자료: 뉴욕타임즈, 3월 15일자

주: 붉은 표시가 점령 지역임

러시아군의 공격은 크게 3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북부에서는 대도시 키이우(수도)와 하르키우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키이우는 서쪽 및 동쪽에서 포위공격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방어 의지를 꺾는 중요한 작전이다. 하르키우는 3월 15일 현재 거의 봉쇄된 상태이다. 동부의 돈바스 지역 2개 공화국은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매일 10~20km 점령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남부는 흑해 연안에서 북쪽으로 공격하여 헤르손 점령을 완료했으며, 마리우폴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지역에서 근위 수비대인 ‘아조프’ 부대가 저항하고 있으나 거의 포위당한 상태에서 전투력이 약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목격한 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기동 속도 지연, 보급 실패, 대량 피해 등을 이유로 러시아의 전쟁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의 지도부 언행이나 SNS 및 각종 방송에서 러시아 측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국의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작전의 성패 여부는 좀 더 관찰한 후에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 20일 간의 작전 현상을 볼 때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래식 전쟁의 귀환이다. 즉, 현대전은 주로 확대된 전투공간에서 정밀무기를 사용하여 비접촉 전투 위주로 전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측과 달리 영토 탈취를 위한 접촉 전투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서방 우세 정보전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여론이나 SNS를 활용하여 자국에 유리한 정보를 전파하고 상대국의 정보는 차단하는 선전전, 여론전을 말한다. 현재 전황과 관련, 주로 서방 언론의 논조가 방송되고 있으며, 러시아 국방부를 비롯한 친러시아 매체는 상당 부분 차단되었다. 셋째, 민간요소의 중요성이다. 러시아는 초기에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삼가고 오직 군사시설만 타격한다고 선언했으나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적 항전으로 기동 속도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 발생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동부지역에서 러시아군은 기동 속도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벨트를 형성하며 점령지역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부지역에서는 키이우를 우회 또는 고립시키면서 시가지 작전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대통령궁 및 지휘 본부 위주로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및 안전보장, 돈바스 지역 2개 공화국의 독립 인정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공격행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동남부 점령지역은 친러 독립국 또는 러시아로 합병할 가능성도 있다.

Ⅲ.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지역은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유라시아 강대국의 근본 토대이다. 러시아는 강대국 부활과 자신의 안보를 위해 구소련 지역에 금지선을 설정한 다음 더

이상 NATO 확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는 2008년 이후 꾸준히 군사력을 현대화하여 자신감과 비대칭 전력을 배경으로 미국과 나토에 안보 요구를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동북아 및 한반도 상황과 관련, 첫째, 군비경쟁 심화 현상이 예상된다.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을 기준으로 위협을 상정하고 그러한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안보 딜레마에 의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및 상호 국경 침범 방지, 공동의 안전보장을 위해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와 NATO의 갈등은 북·중·러 대 한, 미, 일 대결 구도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핵 미보유국인 우크라이나의 안보 취약성을 목격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현대전 양상 연구 및 유사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통계



표. 2022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0.9(+5.0%)	7.0(+12.0%)	17.9	+7.6%
북극해	2,2(+12.6%)	6,3(+8.7%)	8,5	+9.7%
발트해	9,1(-3.9%)	13,0(+12.2%)	22,1	+5.0%
아조프-흑해	8,4(+3.0%)	12,0(+28.6%)	20,4	+16,0%
카스피해	0.2(-18.9%)	0.3(-38.9%)	0.5	-31.4%
합계	30.8(+2.0%)	38.6(+15.5%)	69.4	+9.1%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

표.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488,113.1	58,574.3	2,160.9	3,514.4	490,274	62,088.7
25-27	광물 제품	631,154.4	24,174.4	40,838	53,606.2	671,992.3	77,780.5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497,367.4	20,609.1	511	0.1	497,878.4	20,609.2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4,374	79,626.6	1,178.4	870.8	5,552.4	80,497.6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8.6	2,080.9	9.1	200.9	17.7	2,281.8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0,615	10,273.9	415	269.5	91,030	10,543.4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399.6	48,443.3	65.7	1,446.8	465.2	49,890.1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6,410.9	80,556.7	2,000.8	5,604.8	58,411.6	86,161.4
84-90	기계류	112,094.9	564,415.5	6,905.6	6,888.9	119,000.5	571,304.3
68-71, 91-97	기타	313,063.1	63,036.7	47,434.9	498.9	360,498	63,535.7
	합계	1,696,233.6	931,182.4	101,008.4	72,901.3	1,797,241.9	1,004,083.7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

표.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0	0	-	-	-	-	-	-	0	0	-	-
0303	냉동수산물	98,846	233,521.7	1,005	3,244.7	19	24.2	-	-	98,865	233,545.9	1,005	3,244.7
03031	연어	11,304	48,018	-	-	0	0	-	-	11,304	48,018	-	-
030331	광어	541	4,466.6	-	-	-	-	-	-	541	4,466.6	-	-
030332	가자미	677	600.6	-	-	0	0	-	-	677	600.6	-	-
030339	기타 넙치류	619	493.2	-	-	0	0	-	-	619	493.2	-	-
030351	청어	12,992	3,628.8	-	-	0	0	-	-	12,992	3,628.8	-	-
030363	대구	5,426	17,870.4	-	-	0	0	-	-	5,426	17,870.4	-	-
0303670000	명태	45,483	48,269	-	-	19	24.2	-	-	45,502	48,293.2	-	-
0303893	농어	0	0	-	-	-	-	-	-	0	0	-	-
030391	알류	3,548	97,869.6	-	-	0	0	-	-	3,548	97,869.6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531	986.9	-	-	-	-	-	-	531	986.9	-	-
0304	생선 필레	3,720	11,982.8	48	189	0	0	-	-	3,720	11,982.9	48	189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0.2	1.9	46	274	-	-	-	-	0.2	1.9	46	274
0306	갑각류	5,696	198,497.2	79	575.8	-	-	-	-	5,696	198,497.2	79	575.8
030614, 030633, 030693	게	5,244	190,837.8	-	-	-	-	-	-	5,244	190,837.8	-	-
0307	조개류	4,768	14,594.5	-	-	0	2	-	-	4,768	14,596.6	-	-
03072	가리비	271	496.4	-	-	-	-	-	-	271	496.4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4,041.4	11,028.2	82	441.9	0	0	-	-	4,041.4	11,028.2	82	441.9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1,667	4,167.9	-	-	-	-	-	-	1,667	4,167.9	-	-
03081	해삼	487	1,227.9	-	-	-	-	-	-	487	1,227.9	-	-
03082	성게	993	2,891.7	-	-	-	-	-	-	993	2,891.7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